

전문가 교칭

사회공헌과 윤리경영

질문 1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요?

UN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 주요이슈들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을 들었다. 최근의 윤리경영은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CSV(공유가치창출)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공헌의 주요이슈 및 활동내용도 바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업이 사회문제해결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에게 향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사회문제들을 예측하게 하였는데, 교육시스템 부족, 부실한 공공거버넌스, 기후변화, BOP(Bottom Of Pyramid, 저소득층) 지역 대상 제품개발 및 마케팅과 마이크로 크레딧, 에너지 공급안정, 위생 및 공중보건 등을 들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향후 기업은 사회공헌을 기업의 전략과 연결하여 사회적 가치는 물론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최고경영진은 물론 모든 임직원들이 준법·윤리경영을 지켜서 깨끗하고 공정한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회공헌으로 기업의 부패나 비리를 덮으려는 한다는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명한 윤리경영을 해야만 사회공헌에 대한 전략적 투자나 경영전략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결시키는 것도 당당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 사랑받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질문 2

기업이 사회공헌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요?

선진기업들은 자선적 기부활동에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뒤쫓아 가는 한국기업들도 사회적 기업, CSV(공유가치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와 사회적가치를 융합해나가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기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의 가치와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가치, 사명이 사회혁신과 연관되어 정립되고, 최고경영층부터 구성원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사회혁신활동이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리고, 그 가치를 측정하여 보여 줌으로써 기업의 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둘째, 올바른 사회혁신전략을 펼치기 위해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시장 진입인지, 매출 증대인지 등을 분명히 하고, 이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비즈니스와 연관된 사회 문제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가능한 자사의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 자본시장을 통해 효과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더 성과가 분명한 사회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 재 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동향 & 소식

:: 국 내

KOTRA, '1촌 1품' 통해 인니 지역경제 지원

KOTRA는 11월 17일 자카르타 샹그릴라호텔에서 '2015 한국-인도네시아 사회공헌활동 포럼'을 개최했다. KOTRA는 이번 포럼에서 기업이 특정 지역과 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CSR 활동인 '1촌 1품 협력단'을 발족하여 기존에 행해지던 기부 중심의 CSR보다 지속가능하고 자율적 성장이 가능한 시장형 CSR을 시행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롯데마트, CJ, 삼성전자, 하나은행, 이글 등이며 이 기업들은 현지 지역사회 특화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게 된다.

출처: <http://www.newsway.kr/view.php?tp=1&ud=2015111717542493958>

그린피스, 한국판 '그린 스코어카드' 발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등이 10월 20일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조사 결과, 총 115개 공공기관 중 5개 기업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공기업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부문에는 한국공항공사가 752.03점(만점 1000점)으로 1등을 수상하였고, '공기업 (특정 분야 산업에 대한 진흥)' 부문에는 한국동서발전(707.30점)이 1등을 수상했다. 평가지표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준인 GRI 지표들로 구성되었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ISO 26000)'이 반영되었다.

출처: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feature-story/3/2015/Check-your-favorite-website-green-scorecard/>

기업 내부 감사에 스마트 기술 활용해야

전경련은 11월 20일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기업내부 감사활동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15년 제8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업에서도 스마트폰·SNS·웹하드 등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기업비밀 보호와 내부감사에 전자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앤장 김진환 변호사는 "모니터링을 비밀리에 할수록 임직원의 반감이 커질 수 있다"며 "회사 내규 등에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임직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dailyl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

:: 해 외

UN 반부패협약총회, 여섯 번째 반부패 컨퍼런스 개최

UN 반부패협약총회는 11월 2일부터 5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반부패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반부패 컨퍼런스에서 다룬 주요 안건은 부정 부패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자산회복 방안과 이를 실행에 옮길 법률적 지원에 대한 것이다. 또한 UN 반부패아카데미(UNCAC)에서 이행하고 있는 '국제 반부패 석사학위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펼치는 등 반부패 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출처: IACA Newsletter 2015 4th, IACA(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https://www.unodc.org/documents/treaties/UNCAC/COSP/session6/V1506029e.pdf>

중 사회과학원, 사회적책임(CSR) 기업 순위 공개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11월 1일 베이징에서 '2015년 기업 사회적책임백서 및 중국기업 300대 사회적책임지수'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적책임(CSR) 기업 순위를 공개하였다. 2009년부터 발표된 기업 사회적책임지수는 기업책임, 시장책임, 사회책임, 환경책임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은 중국 내 국영·민영·외자기업 등 300개 기업으로 하고 있으며, 삼성이 중국 내 외자기업 중 처음으로 사회적책임(CSR) 기업 5위에 올랐고, 현대차는 27위를 기록했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11011724112700>

지속가능보고서 국제기구 GRI, 인권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11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속가능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인 GRI가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인 'GRI G4'와 'Linkage Document'를 발표하였다. Linkage Document는 지속가능보고서의 평가 기준 투명성을 증진하고, 보고서의 인권 관련 내용을 'UN에서 정의한 인권'과 일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GRI 회장 Michael Meehan은 "전 세계의 정부와 비즈니스는 기후변화와 인권을 고려하여 불평등,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https://www.globalreporting.org/information/news-and-press-center/Pages/GRI-launches-resource-to-enable-greater-transparency-on-human-rights.aspx>

행사 브리핑

제3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11월 1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대한상의, 산업정책연구원 등이 공동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식이 개최되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은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사랑받는 기업 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 올해에는 총 25개 기관 및 개인(아모레퍼시픽, 인천국제공항공사, KT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글로벌 리포트

이탈리아의 반부패 윤리경영 제도과 정책

글로벌 리포트 이탈리아 부패 현황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지수에서 이탈리아는 175개국 중 69위(43점)에 랭크되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투명성 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청렴시스템평가 결과에서도 55.04%(100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임)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치, 산업,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집행위 보고서(2014)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민의 97%가 이탈리아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며, 88%는 공직에 진출하려면 뇌물과 연줄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사되었다.

최근 이탈리아는 부패척결을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2014년 마피아 조직이 로마 시청과 결탁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부정부패 사범 형기 강화, 공소시효 기간 연장, 부정 축재 재산 압류 등 부패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리포트 이탈리아 정부의 반부패 윤리경영 정책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법을 제정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려 하고 있다.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 '부정부패 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15년 온라인 정보공개 플랫폼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정보공개법) Machine'을 구축하여 이탈리아 공공 기록과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탈리아 부패 방지법

뇌물과 부정부패로 이탈리아 경제적 손실이 1년에 600억 유로에 달하면서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 11월에 190개 조항의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공공 분야(Public Sector)와 사적 분야(Private Sector)로 나누어 법률을 세분화함

- 공공 분야(Public Sector): 반부패 계획 채택,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제, 임직원을 위한 법률 제정,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등 뇌물 및 부패 예방을 위한 공적인 제제를 가동
- 사적 분야(Private Sector): 뇌물 수수 혐의, 개인적인 부정부패,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 등을 통제함

글로벌 리포트 이탈리아 CSR 「Action Plan」

이탈리아 CSR 「Action Plan」은 유럽연합이 발표한 'Green Paper: Promoting a European Framework for CSR'이라는 환경 중심의 CSR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며 기업가, 고객, 주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성공적인 CSR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점에서 세분화하여 다변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성공적 CSR 사례 - 교도소에 회사를 설립한 이탈리아 3대 기업

이탈리아 기계 분야 3대 기업인 IMA, 마르체시니 그룹, GD SpA가 협업하여 이탈리아 도차 교도소에 'FD'라는 기계 회사를 설립하였다. 교도소 수감자들의 갇혀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FD는 기존의 갇혀를 위한 기술교육과는 차별화되며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운영되는 교도소 내의 독자적인 기업이다. 복역 후 경제적인 사회활동이 쉽지 않은 수감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이탈리아 사회의 일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윤리경영 스터디

사회공헌 방안과 실천 사례

사회공헌은 '사회문제를 일시적으로 위안하는데 머물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비영리적인 행위를 전부 포함하는 것(사회공헌정보센터)'으로 정의된다.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과 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경영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금,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공헌 방안과 기업의 성공적인 사회공헌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윤리경영 스터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인권, 노동 실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와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기업 경영자들은 사회공헌을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사회취약계층 지원, 재능기부 형태의 무료 교육, 기업 특화사업을 활용한 사회공헌, 임직원 봉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거 사회공헌 활동이 선택적 경영 이슈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식되었다면 현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윤리경영 스터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공헌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략적 사회공헌, 글로벌 사회공헌, 공유가치창출(CSV)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전략적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일상적인 경영활동과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과 사회의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달성이다.

반도체 제조회사 사례

- 목적**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을 추구, '정보 격차 줄이기'라는 전략적 사회공헌 목표 수립
- 내용**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의 200개 학교에 노트북과 디지털 커리큘럼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무상 제공, 교사가 사용하는 화이트보드를 노트북과 네트워크로 연결해 교사와 학생이 과제물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효과** 반도체가 주요 업인 본 기업이 IT 전문 기업으로 인지를 다지는 발판이 되었으며, 아프리카 시장에 브랜드를 널리 알릴 마케팅 홍보 효과를 거둠

▶ 4면에서 계속됩니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물류업계

물류 산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 운영업,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 서비스업으로 구성된다(출처: 2014/2015 물류시장 회고와 전망, 2014, 김성우 우정경영연구소). 이번 호에서는 물류 산업의 주요 이슈인 화주기업과의 공생발전, 물류 산업의 노동 사각지대, 지속가능한 녹색물류에 관하여 정부와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화주-물류 기업, 공생발전 전략

물류 산업의 다단계 계약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물류 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2012년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생발전 협의체'를 발족하여 제1차 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발의하였다. 표준계약서는 운임 산정 및 지급 방법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하여 물류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분쟁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2013년에 제3차 위원회에서는 화주-물류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상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계약체결과 이행, 물류용역 대금 설정, 물류용역 관련 부대작업에 대한 사항, 보복 조치 금지 등의 권고사항을 담아 물류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 - 물류의 상생 시너지

2014년 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한 '제1회 물류분야 공생발전 모범 사례' 시상식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A기업과 B물류는 표준계약서('12년 12월)를 도입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화주-물류 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배송시스템을 주 2회 배송에서 매일 배송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검품률 감소와 함께 보관면적을 축소시켜 물류관련 비용을 절감하였다.

2 물류 산업의 노동 사각지대

화주-물류 기업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물류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빠른 배송을 위해 택배기사들은 하루 평균 14~16시간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 휴게소와 공영 차고지를 추가로 설치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노동시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통합물류협회에서는 '택배기사 안전문화를 위한 안전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등 정부와 민간에서 물류 산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지속가능한 녹색 물류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높은 물류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세계적인 물류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그린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을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 전담팀을 구성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 역시 녹색 물류를 위해 국제 환경 기준과 우리나라 물류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 산업 특성상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산업계 전반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가능한 녹색 물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 D 기업의 녹색 경영

D 기업은 2009년 선사 최초로 탄소 배출량 계산기(Supply chain carbon calculator)를 개발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오고 있다. 홈페이지에 컨테이너의 모든 운송구간별 출발지, 목적지, 무게를 입력해 각 운송 구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산출할 수 있다.



3면에서 이어집니다.



글로벌 사회공헌

사회혁신활동을 통해 기업이 진출한 시장 및 진출 예정인 신흥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장차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기기기 제조회사 사례

- 목적** 의료 기기를 생산하는 자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글로벌 사회 공헌 시작
- 내용** 현지 수준을 고려한 의료기기를 별도로 제조하여 현지 의료인력 및 의료 기관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적합한 기기 솔루션을 파악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효과** 해당 기업의 아프리카 매출은 5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지원을 받은 르완다의 상급병원 후송률이 42%에서 3%로 감소

공유가치창출 (CSV, Creating Shared Value)

하버드대 경영학과 마이클 유진 포터 교수가 2011년 발표한 공유가치창출(CSV)이란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으로, 단순히 기부하는 활동을 벗어나 기업 핵심 역량과 연계된 사업을 통해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공유가치창출인 것이다.

식품 제조회사 사례

- 목적** '영양, 수자원, 농촌지역개발' 분야에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룹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기업의 목표 수립
- 내용** '글로벌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남아시아 지역에 184개 청정식수 공급, 인도 모가 지역의 농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효과** 영양 및 건강 요인을 토대로 6,692종의 제품을 개선하였고, 2012년 한 해 690만㎡의 물을 재활용하였으며, 농촌지역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창출

감성
메시지



조타(操舵)는 키를 사용해서
배의 방향을 바꾸거나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망망대해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조타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경영에서도 방향을
바꾸거나 전환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의 중요한
기준은 '기업윤리'입니다.

Q&A One Point Lesson

Q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CSV(공유가치창출)가 헛갈려요.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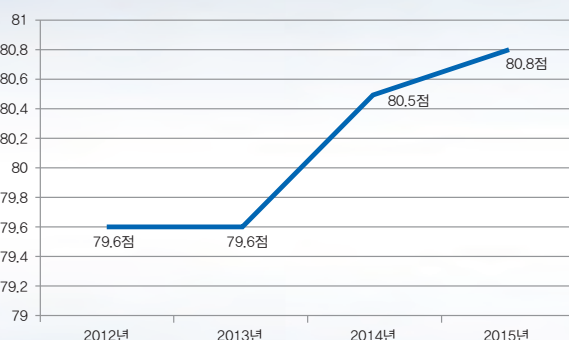
A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ustainability Responsibility)은 기업이 이익이라는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기업윤리, 고용, 소비자, 환경대책,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측면에도 균형있게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행동을 말합니다. 반면 CSV(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란 하버드대 포터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사회적 책임(CSR)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개념이며 기업 핵심 역량과 연계된 사업을 통해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유가치창출(CSV)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비슷하지만 '가치 창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CSV(공유가치창출)은 자본주의 그 자체로서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즉, CSV(공유가치창출)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진화한 개념이며 기업과 사회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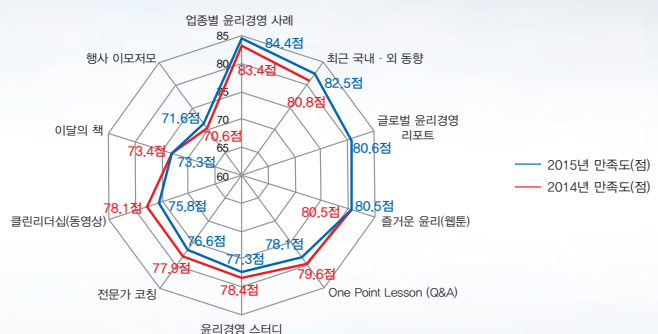
기업윤리 브리프스에 대한 평가는...?

2015년 독자 만족도 조사(10월)에 총 324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사 결과 2015년 기업윤리 브리프스 만족도는 80.8점으로 2014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38%(122명), '제공되는 정보가 다양해서' 23.1%(74명),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도가 높아서' 19.6%(63명), '우수 기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서' 8.7%(2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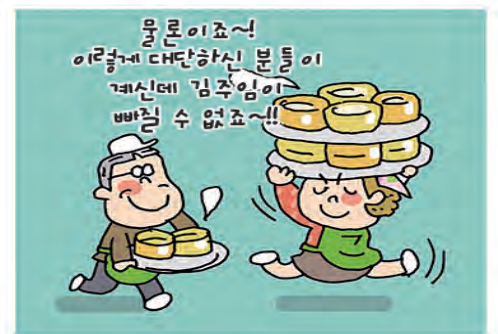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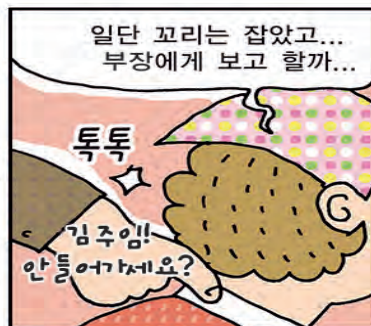
콘텐츠별 만족도



기업윤리 브리프스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더 알찬 정보와 자료를 준비하여 윤리경영 확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작진 일동

Yes 준비!
 Ok 윤리!

대단한 사람(?)



자료제공 : 교보생명

맛 취 보 세 요

사회적 책임보다 한 단계 발전한 개념으로, 기업 핵심 역량과
연계된 사업을 통해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 1)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2)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3) CSV(Creating Shared Value)
- 4) TOC(Theory of Constraints)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커피 2잔)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1번,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 주무관(gukmin@korea.kr)
- ※ 성함, 휴대폰 번호(모바일 상품권 수신처)를 보내주세요(23일까지).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정보미님, 이효진님, 김소희님, 신수정님,
곽재희님입니다.
- ※ 보내주신 연락처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